

영원한 섭리 역사를 위하여

작성일 : 2010년 10월 26일 (화)

작성자 : 이빛지 (춘천중앙교회)

[구약성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해주셔도 이스라엘은 왜 그리 애태우는 역사를 해왔는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섭리역사는 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영원하게 이뤄야겠다는 감동이 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 말씀 *

그때, 그때 주는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흘러온 역사를 성경을 통해 볼 때
중심인물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만큼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 사탄이 틈을 타게 되었다.
자신을 고치지 못한 만큼 여호와를 보는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것이 보이며, 세상으로 흘러갔다.

영원한 섭리역사는 성삼위의 몸부림만이 아니다.
너희 스승만의 몸부림이 아니다.
모세만 몸부림쳤다고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였듯이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도가 좌우된다.

영원한 섭리 역사를 함께 이루자.
너희가 지금 이때 말씀을 받아 얼마나 실천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후대 역사까지 좌우되는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서 자신을 변화시켜
온전한 신부로 거듭나거라.
자신 한 명,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니다.
역사이다. 함께 역사를 이루자.
자신의 가치를 알아라.
자신이 얼마나 큰 역사의 축에 있는지 깨달아라.
절대 잊어선 안 된다.

지금 이때 너희가 얼마나 말씀으로 변화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후대의 역사가 좌우된다.

영원한 역사를 이루자.

길이길이 빛나는 섭리 역사를 만들자.

사랑한다.

사랑의 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